

해남군, 다자녀가정 셋째아부터 대학 학자금 지원

39세 미만 셋째 이상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해남군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한다. 39세 미만 셋째 이상 다자녀 누구나 학자금을 지원해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라도 해남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지원대상은 셋째 이상 39세 미만 자녀이다.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 재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대상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실제 본인 납부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과 해당 대학교

에 학자금 중복 여부를 확인 후 해당 대학교에 선지급되며, 이미 납부한 학자금은 각 대학교에서 다자녀 가정에 반환해 준다.

올해 1학기 학자금 지원 신청서는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자의 신분증, 학자금 납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통하여 다자녀가정의 학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다자녀가정 자녀 106명에게 1억7300만원의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가루쌀 재배 기술 교육 실시 강진군,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

강진군이 쌀 수급안정과 수입밀 대체를 위한 가루쌀 안정생산 재배기술 교육을 지난달 30일 실시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선정된 경영체 소속 농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안준섭 작물연구팀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안준섭 작물연구팀장은 강의를 통해 가루쌀 ‘바로미2’의 품종적 특성, 안전 육묘 방법, 시기별 재배 기술, 병충해 방제 등의 안정적인 재배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가루쌀은 일반 쌀과 달리 쌀알 구조가 성글고 물러 쌀가루 제조가 쉽고 건식 제분 가능하여 가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낮은 이앙 시기가 6월 하순으로 다른 동계 작물과 안정적으로 이모작이 가능하다.

강진군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4개 단지가 포함되어 가루쌀을 재배할 계획이며, 재배단지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준섭 작물연구팀장은 “가루쌀(바로미2) 재배 방법이 매우 높은 수준의 재배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발아와 병충해 등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와 단지별 현장 중심의 교육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눈에 가루쌀 재배 시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ha당 200만 원씩 지원되며, 동계 밀·조식료와 이모작할 경우 ha당 최대 350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신청 및 접수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31일까지 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이색 철쭉나무 분재전 신안군, 15일까지 개최

신안군이 오는 15일까지 1004섬 분재정원에서 ‘철쭉나무 꽃’을 주제로 철쭉나무 분재 특별전을 개최한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특별전에 전시되는 분재는 1004섬 분재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120여 점의 철쭉 분재로, 종류는 40여 가지에 달한다.

이번 전시회는 주 관람로에 40여 점, 유리온실(3전시실)에 80여 점의 철쭉 분재가 전시되어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철쭉나무’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꽃은 4-6월에 잎과 동시에 피며 가지 끝에 3-7개씩 산형으로 달리고 연분홍색, 흰색 등으로 핀다.

열매는 삭과로 긴 타원상 난형이며, 10월-11월에 성숙하고,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과 ‘즐거찬 번영’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철쭉꽃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1004섬 분재정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에게 봄의 특별한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오는 15일까지 신안군이 분재정원 일원에서 ‘철쭉나무 꽃’을 주제로 분재 특별전을 개최한다.

신안군 제공

무안군,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참가자 모집

당일 여행활동비 16만원 지원

무안군(김산 군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안군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사업’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체, 시각, 발달, 청각장애인 중 기

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전남도내 당일 여행활동비 1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70세 이상 고령자가 참여할 경우 동행 1인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 여행상품은 목포·신안 투어 등 장애인상품 2종과 순천으로 힐링여행 등 저소득층 상품 3종이며 여행은 5월 하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영미 관광과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장애인과 고령자의 여행활동 범위를 넓히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여행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군, 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무안군(군수 김산)은 봄철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게 물려서 발생하며, 대표적인 질병은 쯤쯤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진드기에게 물린 후 5~14일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며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물렸을 경우 치명률이 높고 아직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예방법으로는 야외활동 시 긴 팔, 긴 바지, 목이 긴 양말 착용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야외에서 돛자리 깔고 앉기, 야외활동 후 털고, 씻고, 세탁하기가 있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진드기에게 물리거나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2억원 돌파

찾아가는 홍보활동 성과

완도군의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2억 원을 넘었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에서 1992명이 동참하며 총 2억 3000만원이 모금됐다.

지난해 4월 말 모금액은 1억3000만 원

이었다. 향우회와 각계각층의 출향인들은 물론 기업 및 자매결연도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완도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명예 군민으로 선정된 ㈜야진 산업 서준호 대표가 ‘완도 고향사랑 서포터즈’로 참여 임직원들과 함께 기부를 하

고 할 전복을 담례품으로 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야진산업 관계자는 “완도군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 등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면서 “내 마음의 고향, 완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금호타이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우전자부품 방면에 이어 담례품 공급 업체와 연계하여 기업체 직장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신안군, 기념 우표 발행... 지역관광지 표현

신안군은 지난 1일부터 ‘1004섬 신안군 기념우표’를 신안군과 목포시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기념우표는 지난 4월 17일 신안군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목

포우체국이 신안군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신안군청에서 체결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1004섬 신안군 기념우표’는 신안군의 유명 관광지와 섬꽃, 축제, 문화유산 등

신안군만의 특별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담아, 우표라는 작은 액자를 통해 신안군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후로도 신안군의 다양한 테마를 기념우표로 제작하여 신안군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진도군, 유해물질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 예방 작업환경 측정

진도군이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작업환경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진도군은 먼저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사했고 사업장 15개소를 전문가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 물질의 사용 행태와 노출시간 등을 확인하는 등 작업환경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조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8일부터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음, 목재분진, 유리섬유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근로자가 직접 측정 기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진행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지역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